

“9년만에 제 목소리 담아...‘아재 파워’ 보여줄 것”

광주서 활동 2집 앨범 낸 가수 ‘더블에이엔티’ 박우준대표

**‘아버지의 바람개비’ 등 수록
지역서 공연기획·후학양성 힘써**

“콘서트 기획자로서만 일을 하다가 9년 만에 제 목소리를 담은 앨범을 준비했습니다. 품안에 핸드폰이 21세기의 전축으로 자리매김한 지금, 귀에 이어폰을 꽂기만 하면 제 음악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광주지역에서 활동하는 가수 겸 작곡가가 2집 앨범을 내 화제다.

뮤지션 에이전시를 운영하며 공연기획과 후배양성에 주력하고 있는 ‘더블에이엔티’ 박우준(본명 박상진·41·사진)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지난 10월 2집 디지털 싱글앨범을 발표했다. 앨범에는 ‘유행작’과 ‘아버지의 바람개비’ 두 곡이 담겨있다. 지난 2008년 5월 ‘바람 속으로’ 데뷔작 이후 9년만의 작품이다. 지난 2001년 라디오 패널로 시작된 그의 음악활동이 그를 가수 겸 작곡가로 이어주는 결과로 이어졌다.

“‘유행작’이라는 곡에는 근래 십수 년



동안 빠르게 변하고 잊히는 것을 당연시하는 세대와 함께 문화, 정서적 결여에서 오는 공허함과 피로감을 시대적·지역적 사랑과 감수성을 담아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바람개비’라는 곡은 제 인생의 여정이 담긴 곡이지요. ‘바람에 맞서야 바람개비

는 돌아간다’라고 하셨던 아버지의 기억을 담은 곡입니다. 이제는 아이들의 아버지가 된 저의 추억이 담긴 곡이라고 할 수 있지요.”

동시대 실용 음악과를 졸업한 그는 광주·전남지역에서 공연활동을 펼치며 지역예술 활성화에 기여했다.

그는 여수에서 동갑내기 가수 겸 작곡가들을 만나면서 다시 음악에 주목했다. 그 덕택에 박 대표는 지난 2015~2016년 2년간 여수 버스킹축제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국내 음악계 트렌드가 아이돌 중심으로 바뀌는 바람에 통기타와 하모니카 공연이 자취를 감추게 됐어요. 이러한 공연들이 사라지고 길거리에는 통기타와 하모니카 대신 버스킹 공연이 자리를 잡았죠. 이렇게 다른 이들의 공연을 위해 일하다 보니 제 음반 작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박 대표는 광주에서 에이전시를 운영하며 후학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박 대표는 “마흔이 넘어선 두 번째 앨범이지만 ‘아재 파워’를 보여주고 싶다”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원재기자 ej6621@kwangju.co.kr

‘전남 대표음식점·어촌을 위한 싱싱장터’ 합평·여수·장흥서 열려

전남어촌특화센터·외식업 도지회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남도지회가 주최한 ‘전남 대표음식점과 전남 어촌을 위한 싱싱장터(사진)’가 지난 8일 오전 합평 천지면역, 여수 들깨나라, 장흥 바다하우스 식당 등 3곳에서 일제히 열렸다.

이날 합평 천지면역에는 최정희 전남도 해양환경과장, 조용수 전남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광희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장, 김성진 Y-MART 회장, 손흥주 합평석두어촌계장, 합평 석두마을 주민 등이 참석해 합평 석두어촌계에서 캔 바지락으로 만든 갈국수를 시식했다.

여수 들깨나라와 장흥 바다하우스 식당에서도 한국외식업중앙회 여수지부, 장흥지부 주최로 김유근 소경어촌계장, 김영만 수문어촌계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바지락 갈국수, 바지락 무침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싱싱장터를 개최했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합평 석두, 여수 소경, 장흥 수문 등의 특산물을 지역 음



식점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한편 마을주민들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음식을 대접할 수 있도록 각 지역 대표음식점에 교육을 의뢰한 바 있다.

지난 7월 13일 오전 전남 어촌이 생산하는 수산물 직거래, 음식 개발 교육, 싱싱장터 운영, 관련 내용 홍보 등을 위해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남도지회, 광주일보와 공동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송기현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남도지회

지회장은 “싱싱한 전남 어촌의 수산물을 지역 대표음식점이 맛있게 요리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판매하는 일이야말로 모두의 상생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임광희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장도 “이번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 감사한 마음”이라며 “전남 어촌과 음식점이 모두 이익이 되는 길을 찾도록 센터가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사진=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제공

목포대 총장 1순위 후보자 이성로 교수 선출

목포대학교 제8대 총장 1순위 임용후보자 이성로(사진) 건국·토목공학과 교수 가 선출됐다.

10일 목포대학교에 따르면 이 교수는 7일 교내에서 치러진 총장선거 결선투표에서 50.01%를 득표, 박민서(49.98%) 사회복지학과 교수에 0.03% 포인트 앞서 최다 득표했다.

이 교수는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으며 1992년 목포대에 전임교원으로 임용

돼 산학협력단장, 기획처장 등을 역임했다. 목포대는 교육부가 국·공립대 총장선거 간선제 유도정책을 폐기한 뒤 직선제로 전환

해 총장 후보를 선출했다. 선거에는 5명이 등록해 결선투표까지 접전이 벌어졌다. 목포대 총장 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는

대학 연구 우리 검증 절차를 거쳐 이 교수와 박 교수를 각각 1, 2순위 후보자로 교육부에 추천할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인사

◆농협중앙회

▲박태선 전남지역본부장 ▲김일수 광주지역본부장 ▲이흥목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 상무. <이상 2018년 1월 1일자>

모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연 상담 062-351-1206.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



지난 8일 우기중 전남도 정무부지사, 송중욱 광주은행장, 나항도 전남농공단지협의회장, 김성진 Y-MART 물류회장, 김일환 광주일보사 편집국장 등이 나주 엠스테이호텔에서 열린 ‘전남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 협약’에 참여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농공단지 생산 제품 적극 알리고 애용합시다”

광주일보-전남농공단지협 ‘전남 농공단지 활성화 협약’

광주일보는 지난 8일 나주 엠스테이호텔에서 전남도, (재)전남농공단지협의회 등과 함께 ‘전남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이들 기관뿐만 아니라 광주은행, 보해양조, Y-MART,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등 지역 기업·기관도 함께 했다.

이번 협약은 산업단지 등에 비해 지원 체계가 미흡하고 인지도가 낮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지역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식에는 우기중 전남도 정무부지사, 김일환 광주일보 편집국장, 나항도

전남농공단지협의회장, 송중욱 광주은행장, 채원영 보해양조 대표이사, 김성진 Y-MART 물류회장, 윤석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등 협약기관 대표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기업은 전남지역 농공단지 입주기업 성장을 위한 생산 제품 사주기 등 지역사랑을 실천한다.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언론으로서 이들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광주은행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 등 금융 지원과 경영활동 지원, 각종 마케팅 활동을 펼친다. 향도 유통기업인 Y-MART는 농공

단지 제품을 우선 입점토록 하고, 보해양조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는 농공단지 제품 구매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기중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특성 및 기업의 영세성으로 국가·일반산단보다 지원체계가 미흡할 뿐 아니라 기업의 낮은 인지도 때문에 판로와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크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농공단지 생산 제품의 우수성을 적극 알리고 지역 우수기업과 함께 상생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역 농공단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10억원씩 3년간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마케팅·지식재산 확보 지원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나주=박정욱기자 jwpark@

광주변호사회, 근로정신대 일본 변호단에 감사패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지난 8일 오전 변호사회관 회의실에서 지난 1999년부터 한국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소송을 헌신적으로 지원해온 일본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공동변호단 감사패’ 전달식

광주지방변호사회 제공

서강석 호남대 총장

한·중 우호교류 감사장

서강석(사진) 호남대학교 총장이 지난 8일 광주차이나센터에서 열린 ‘2017 중국 주광주총영사관 송년회’에서 송시엔위(孫巖偉) 총영사로부터 한·중 우호교류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다.

송시엔위 총영사는 “호남대와 호남대 공자학원이 지난 10여년 동안 한중우호교류와 양국 간 교육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

광주 태봉초 ‘감사나눔주간’ 행복장터 운영

광주 태봉초등학교(교장 노영숙)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감사나눔주간(사진)’을 운영했다.

2학기 감사나눔주간에는 학년별 ‘행복나눔장터’가 열렸다. 행복나눔장터는 선물코너, 알뜰시각코너 및 먹거리코너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학년 감사나무 및 우수 감사나눔기록장 전시와 사랑의 연탄기부 활동도 함께 열렸다.

학생들은 1년 동안 감사를 표현하고 선물을 실천해 모은 감사나눔스티커를 쿠폰으로 교환, 행복나눔장터에서 물건과 먹을거리를 사고 이웃도 돕는 나눔의 즐거움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노영숙 교장은 “학생 스스로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감사나눔 문화를 통해 아이들이 주변을 둘러보고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키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원재기자 ej6621@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6 FAX 062-222-4938, 222-4918

하축

▲임신·박순옥씨 장남 영진군(광남일보 기자) 이종운·김오단씨 차녀 혜경양=16일(토)오전 11시 50분 광주시 서구 P&J 웨딩홀 1층 프린세스홀.

▲김상운(전 광주시정, 도시공사)·나선희씨 막내 민선군 박종양·오옥자씨 장녀 근영(불로초등학교)양=17일(일) 오전 11시 40분 더케이웨딩홀(구 광주교직원웨딩홀) 3층.

동창회

▲동국대 광주동문회 송년의 밤=12일(화) 오후6시30분 일송정(광주일고 앞) 회비 3만원. 010-3600-6199.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무료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엠펙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061-285-1161.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미혼부모 상담 및 미혼모자가가족복지시설 입소 안내, 학생미혼모 단기위탁교육 기관으로 학력 인정, 무료료지원 및 속식보호 062-232-1313.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시 동구 준보로3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습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 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광주장애인인권센터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62-369-0420(1577-5364).

장안쪽 관리사무소원 062-512-5788, 062-262-1542.

▲푸른길통통문화마을 회원=푸른길 지점이 활동을 함께하실 분은 누구나 지원 가능(상시모집) (사)우리문화예술원 062-523-0474.

▲각화문화회집 프로그램 회원=바이올린교실(매주 토요일 오후 1시~오후 4시 30분), 하모니카(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

분~오후 3시), 노래교실(매주 월요일 오후 3시~오후 4시30분) 등 회원 모집, 광주 북구 각화동 480-41번지 062-265-9337.

▲남구 방림1동 새마을 협의회원=자원봉사 남자 회원 수시 모집(자녀 장학금 혜택 있음) 010-9612-7695.

▲광주·전남불교신도회원=불교합창단 창단에 앞서 합창단원으로 활동할 불자를 모집. 노래를 좋아하는 불자(55세 이

하) 무각사 내 불교회관 2층 법당 062-385-1336.

부음

▲강중복씨 별세 강중순(순천대 교수)·세구(전남대학교청천 비서관)씨 부친상 김준태(봉선동 건강태권도 관장)씨 장인상 이은하(순천비봉초 교사)·조현정(동신대 홍보팀장)씨 시부상=발인 12일(화) 광주시 서구 천지장례식장 062-527-1000.

▲김금순씨 별세 윤원진(CMB광주방송 편성기획팀장)씨 처조모상=발인 11일(월) 전남 장성 산림조합 장례식장 061-394-0444.

▲양경숙씨 별세 박한별·한주·서원씨 모친상 박준길씨 배우자상=발인 11일(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3분향소 062-231-8903.

▲박동식씨 별세 박근철·근호·근용·인숙·지현·선희씨 부친상 김은미·이연이씨 시부상 이종석·김현철·김홍중씨 부부상=발인 11일(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201호 故장평일 남(남/81세) 子 : 장귀태 女/婿 : 장남희/장관태, 장하영/구재길 孫 : 정호근, 민정, 구영진, 진세, 영민 ● 발 인 : 12월 11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81	402호 故황의순 남(남/86세) 子/子婦 : 김영식/박미자, 현식/최영미 女/婿 : 강순희/박영기 孫 : 전 진 ● 발 인 : 12월 11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14
101호 故김춘심 남(남/89세) 子/子婦 : 윤성만/최민숙 女/婿 : 윤성희/김영석, 성심/이동만 ● 발 인 : 12월 11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000	102호 故채영신 남(남/71세) 子/子婦 : 김철호/지숙연, 김연태, 김경석/이효정 女/婿 : 김민지/김영수 ● 발 인 : 12월 11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85

함께한10년.함께할100년 금호 장례식장 062·227·4000
www.mykumho.com